전진'95 : 화학산업의 세계화를 추구하며 …

석유화학 신증설의 "난맥상"

국내 석유화학산업계가 94년 하반기이후 각종 신증설을 활발히 추진, 석유화학의 호황국면을 대변해 주고 있다.

우선 대림산업을 비롯한 NCC기업들이 남아도는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의 수급밸런스 차원에서 LDPE·HDPE·PP 등 합성수지공장의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고, 삼성종합화학·현대석유화학은 PVC사업에 관심을 갖고 기술도입계약을 추진하는 등 야단법석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삼성·현대·유공 등이 대규모 SM 증설에 들어갔고 유공·호남정유는 PX 증설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 삼성석유화학·선경인더스트리·삼남석유화학 등은 TPA 공급부족을 타개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증설을 추진중이다. 이 밖에도 석유화학유도품 투자계획이 줄을 잇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같은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의 신증설 추진은 기초유분과 중간원료의 수급밸런스를 맞춘다는 의미에서, 또 국제적으로 공급부족현상을 보이고 있는 SM·TPA 등 중간원료의 공급여력을 확보해 시장을 선점한다는 의미에서, 아울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유분으로 고부가가치제품을 제조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영을 호전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90년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기초유분 및 중간원료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왔으며, 심지어 국내 수요가 존재하는데도 내수의 70%정도만을 공급하는 생산안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또 각종 유분을 활용해 유도품을 개발하는 노력은 전무인 채 고부가유도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 사업성을 고도화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의 기초유분 및 중간원료의 자급을 넘어선 수출지향이나 중국·동남아시장의 가격결정권을 보지한 것은 삼성·현대의 석유화학사업 신규 참여와 아울러 국내 재벌들의 공격적 경영에 기인한 바 크고, 이에따라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91~93년의 극심한 불황을 극복하고 94년 하반기이후 호황세를 만끽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기업들의 노력이 많은 부분 반영된 결과이기는 하나 미국의 경기상승과 이에 편승한 세계경기의 호황세, 미·일 무역전쟁으로 인한 엔고현상, 급작스런 경기상승으로 인한 합성수지 및 TPA 등 합섬원료의 공급부족이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상승을 부채질했고 미국·유럽의 불의의 공장트러블 및 폭발사고도 한 몫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석유화학제품 공급부족과 가격상승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는 이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고, 미·일무역전쟁과 엔고로 인한 일본경제의 하향곡선, 중국의 덩샤오핑 사망임박설 및 권력투쟁으로 인한 정치불안, 국제 원유가의 장기 상승전망 등이 겹쳐 예측을 불허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 SM·TPA 등은 국내 경쟁기업끼리 시장선점 및 경쟁력 강화 차원의 증설을 단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예상하지 못했던 경기하향곡선이 들이닥칠 경우 대처할 능력을 상실하지나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과거 3~4년동안 삼성·현대의 참여를 계기로 촉발된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을 잘 견디어내고 오늘의 호황국면을 유도해 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또다시 과거와 같은 불황국면이 도래할 경우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몇몇기업들이 과거 3년여의 누적적자를 아직까지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조원이 넘는 건설부채를 해소하기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신증설 투자 및 보완투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포기하거나 게을리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권유하고 싶다.

다만, 투자에 앞서 사업성을 평가하고, 장기수급을 예측하며, 내수와 수출의 균형점을 찾는 사업성 분석을 게을리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석유화학은 대기업들이 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나름대로의 사업성 검토가 따르고, 전문기관 못지 않은 분석과 예측이 행해지겠지만 그 자체로써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통적으로 또는 경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서로간에 의견을 개진하고, 자기주장을

펴면서 장단점을 상호 비교해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협력을 모색해 가능한 한 사업리스크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생산의 50% 안팎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화학 수급구조의 특성에 유념해야 함은 더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화학저널 1995/5/22>